

보도시점 2023.11.24.(금)

배포 2023. 11. 24.(금)

미세먼지, 황사 등 동북아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역내 국가들간 협력을 가속화한다

- 외교부, 의장국으로서 역내 포괄적 환경 협력체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고위급회의 주최(11.23.-24.) -
- 동북아환경협력계획 출범 30주년 기념 선언문 채택, 대기오염 등 동북아 역내 주요 환경 문제 관련 대응 협력 강화 및 새로운 협력 분야 모색 합의 -

지난 30년간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해온 동북아 6개국 정부간 협의체인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제26차 고위급회의(SOM)가 11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주재(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하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 NEASPEC(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은 우리나라 주도로 1993년 출범한(한, 중, 일, 러, 몽, 북한 등 6개 회원국) 동북아 지역 환경 문제 관련 협력을 위한 역내 유일의 포괄적 정부간 환경 협의체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금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대표단과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본부 및 동북아지역사무소(동북아환경협력계획 사무국 역할 수행) 등 국제기구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의장 자격으로 금번 회의를 주재한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동북아환경협력계획이 대기오염 등 5대 협력 분야에서 포괄적인 동북아 환경 협력체로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회원국들이 새로운 협력 분야를 적극 모색하고, 기여를 확대하여 동북아환경협력계획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회원국들은 △대기오염, △자연보전 및 생물다양성, △해양보호구역, △저탄소 도시,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 등 5대 협력 분야별로 진행 중인 동북아환경협력계획 사업·활동을 점검하고, 분야별 발전 방안과 각 회원국의 기여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동북아환경협력계획 출범 30주년을 기념하여 회원국들은 금번 회의에서 ‘동북아시아 환경협력 촉진을 위한 기념 선언문(NEASPEC Commemorative Statement on Promot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을 채택하였다. 동 선언문에서 회원국들은 기존 협력 사업·활동·플랫폼의 진전을 가속화 하기 위해 동북아환경협력계획의 조정 및 의사 결정 과정을 최적화하고, 과학과 정책간 연계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북아환경협력계획의 역내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동북아환경협력계획 사업·활동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SOM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여를 독려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소개하고, 지난 10월 출범한 무탄소연합(Carbon Free Alliance)를 통해 원전,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의 활용을 촉진하여 국제사회의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내 대기오염 대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정책·기술 협력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조속한 시일 내 과학 분야 협력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 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 동북아 역내 대기오염 공동 대응 협력체로 2018.10월 공식 출범, NEASPEC 틀 안에서 정책·기술·과학 협력 활동 수행

한편, 금번 회의에 앞서 개최된 동북아환경협력계획 30주년 기념 행사에서 회원국 정부 대표와 협력 분야별 전문가들은 동북아환경협력계획이 역내 유일한 포괄적 환경 협의체로서 지난 30년간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동북아환경협력계획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금번 회의를 통해 미세먼지와 황사 등 월경성 환경 문제에 대한 동북아 역내 대응 노력을 주도해온 우리 정부의 리더십을 재확인하였으며,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진전에 어려움이 있었던 동북아 환경협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붙임 : 1. 제26차 동북아환경협력계획 고위급회의/30주년 기념행사 프로그램
 2. 제26차 동북아환경협력계획 고위급회의/30주년 기념행사 사진
 3. 동북아환경협력계획 30주년 기념 선언문. 끝.

담당 부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후변화외교과	책임자	팀 장	조은정 (02-2100-7859)
		담당자	사무관	이세혁 (02-2100-7861)

붙임 1**제26차 NEASPEC SOM/NEASPEC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프로그램****1. 11.23.(목)~24.(금) 제26차 NEASPEC 고위급회의**

일 자	시 간	프 로 그 램	비 고
11.23.(목)	13:30-13:45	1. 개 회	
	13:45-14:00	2. 회의 담당관 선출	
		3. 의제 채택	
	14:00-15:00	4. 동북아 내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안(회원국별 발언)	
	15:00-17:30	5. NEASPEC 사업 계획·이행 검토 a) 대기오염 b) 생물다양성 및 자연보전 c) 해양보호구역 d) 저탄소 도시 e)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	
		6. NEASPEC 출범 30주년 기념 문서 검토/채택	
17:30-18:30	만 찬		
11.24.(금)	09:30-10:00	7. 핵심 기금 및 사업 기금 검토	
	10:00-10:30	8. 제26차 SOM 일시·장소·의제 / 9. 기타 사안	
	10:30-11:00	휴식 (회의 보고서 초안 작성)	
	11:00-13:00	10. 회의 결과 및 권고사항 채택/폐회	

2. 11.23.(목) NEASPEC 출범 30주년 기념 행사

시 간	프로그램		비 고
09:00-09:30	등 록		
09:30-10:15	개 회		
	개회사	Ganbold Bassanjav ESCAP 동북아사무소장	3분
	축하 영상	동북아 환경협력 30주년 축하 영상	5분
	축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 Bayarmaa Batsukh 몽골 환경관광부 국장 · Yoshinori Suga 일본 환경성 지속가능인프라과장 · Lie Cheng 중국 외교부 국제경제국 참사관 · 러시아 대표 	각 5분, 총 25분
	단체사진 촬영		
10:15-11:40	동북아 환경협력 라운드테이블 - 좌장 : 남상민 ESCAP 환경·개발국장		
	패널 토의 1	- 주제 : NEASPEC 성과·진전·기회 관련 회원국 고찰 - 패널 · 김찬우 前 기후변화대사 · Lie Cheng 중국 외교부 국제경제국 참사관 · Yajuan Wang 중국 생태환경부 국제환경협력센터 교수 · Yoshinori Suga 일본 환경성 지속가능인프라과장 · Ariuntuya Dorjsuren 몽골 환경부 선임 전문관	45분
	패널 토의 2	- 주제 : NEASPEC 성과·진전·기회 관련 전문가 관점 - 패널 · 우정현 건국대학교 교수(NEACAP SPC 의장) · Bernhard Seliger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 Jennifer George EAAFP 대표 ·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 연구위원 · Chris Di Gennaro 시티넷(CityNet) 사무국 담당관	40분
11:40-11:45	폐 회		
11:45-13:00	오 찬		